

건설업계 10% “이자상환 어려움 겪어”

대한건설정책연구원 최근 3년간 분석
1,433개 업체 중 146곳 달해

최근 3년간 이자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건설업계 한계기업이 10%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.

대한건설정책연구원이 외부감사 대상 건설업체 최근 3년간 경영실적을 제출한 1,433개사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지난해 기준 한계기업은 총 146개사로 전체의 10.4%에 달했다. 이는 2017년 기록한 한계기업 비중인 9.2%보다 1.2%포인트 증가한 것이다. 한계기업은 영업이익이 이

자비용보다 부족해 이자보상배율이 최근 3년 연속 1 미만인 부실업체를 의미한다.

연구원은 최근 건축·건설장비·설비 관련 업종이 침체기를 맞으면서 한계기업 증대에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다. 또 지난해 들어 건설기업들의 수익성·성장성 등 경영실적이 모두 악화된 점도 요인으로 꼽았다. 실제로 건설기업들의 매출액 대비 순이익률은 2014년 -0.2%에서 2017년 4.1%까지 회복세를 보이다 지난해 0.2%포인트 떨어진 3.9%로 집계됐다.

윤종헌기자jjong@kwnews.co.kr